

# 한국의 살인: 추세, 특징, 그리고 전망

## *(Homicide in Korea: Trend, Trait, and Perspective)*

박형민 (Hyung Min Bark)

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서, 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폭력성 범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살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살인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면식범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살인범죄의 과정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연쇄살인은 다수살인의 한 유형으로서,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죄자는 크게 쾌락추구형과 이득추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각 범죄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은 범죄가 더해지면서 점차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연쇄살인과 달리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은 살인범죄를 무차별 살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묻지마 살인, 무동기 살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유형의 살인은 피해자의 선택이 임의적이라는 특성 이외에, 좌절을 경험한 범죄자의 표출적 성격의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폭력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살인범죄의 발생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차별살인이나 연쇄살인과 같은 유형의 살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박형민(朴亨敏) 박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범죄와 일탈 연구에 주력해 왔다. 다양한 범죄 및 일탈 유형 중 특히 살인, 방화 등의 강력범죄 연구와 자살 연구에 주된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살, 차악의 선택』(2010), 『일탈과 범죄의 사회학』(공저)(2015),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공저)(2008),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2004), 『셉테드 이론과 실무 I』(공저)(2014) 등이 있고, 주요 논문은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22-1(2013), “연쇄살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징”, 『한국범죄학』(2012),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죽이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38(2010), “대량살인 범죄자와 연속살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징”, 『형사정책연구』20-1(2009) 등이 있다.

**Date & Time: April 27 (Thur.) 2017, 12:00-13:00**

**Place: SNUAC Rm #406**